순천시 머무는 관광 위해 숙박료 할인점 지정

지역 관광지 방문 당일 입장권 소지자 10~40% 할인

숙박업소 35곳 참여 내년 5월 18일까지 1년동안 시행

순천시가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해 '숙박요금 할인점' 지정하고 운영에 나서 주목된다.

순천시는 '숙박요금 할인점'을 지정해 지역 관광지를 방문한 당일 입장권 소지자에게 가격을 할인해주는 이벤트를 지난 19일부터 내년 5월 18일까지 1년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숙박요금 할인점' 지정·운영은 총 35곳(관광호텔 1, 일반호텔 1, 모텔 26, 호스텔 7)이며 지정업소에 대해 지정서 및 표지판 제작 지원한다.

순천시는 봄철 관광 성수기는 물론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순천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감동이 있는 여행지'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바가지요금 받지 않기 ▲친절도 높이기 ▲쾌적한 숙박환경 조성 등 체류형 관광을 늘리고 순천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친절서비스 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이번 요금 할인 대상은 관광지(순천만국가정원, 순천만습지, 드라마촬영지, 낙안읍성)를 방문한 당일 입장권 소지자에 한해 정상요금의 10~40%를 할인해 순천을 가성비 높은 관광지로 인식시킨다는 목표다.

숙박요금 할인 업소는 시 홈페이지(www.suncheon.go.kr)와 순천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순천숙박(main.suncheon.go.kr/stay) 및 국가정원 종합안내소에서 확인 가능하다.

채승연 순천시 관광진흥과장은 "이번 '숙박요금 할인점' 지정은 순천시의 앞서가는 관광 정책을 전국의 관광객들에게 알리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숙박업소 중에는 반려동물과 함께 투숙할 수 있는 업소도 포함돼 있어 반려동물을 동반하는 관광객들은 해당업소를 확인한 후 이용해 달라"고 말했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kwangju.co.kr

순천시는 '숙박요금 할인점'을 지정해 지역 관광지를 방문한 관광객에 숙박요금을 할인해주는 이벤트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 4월 순천만국가정원을 찾아 봄꽃 축제를 즐기는 관광객들. 〈순천시 제공〉

순천~여수~광양 광역시내버스

다음달부터 무료 환승 시행

순천시는 6월1일부터 순천~여수~광양 시내버스 간 광역시내버스 무료 환승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여수·순천·광양시 행정협의회는 광양만권 광역교통망 구축을 위해 올해 1월1일부터 광역버스 운행을 시작해 6월1일 광역무료환승 시행을 목표로 3개 시가 교통카드 연동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광역시내버스 무료환승 방식은 버스에서 내릴 때 교통카드 하차단말기에 체크한 후 60분 이내에 환승할 경우 순천, 여수, 광양 시내버스에 상관없이 1회에 한해 무료로 탑승이 가능하다.

여수·순천·광양시 행정협의회는 광역시내버스 무료환승 운영에서 발생되는 문제점들은 상호 협의를 통해 개선하고, 광양만권 3개시의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광역 무료환승제를 시행할 경우 3개시 시민들이 지역에 상관없이 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된다"며 "교통불편 해소와 더불어 대중교통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노인요양시설 의료폐기물

다음달 1일까지 특별점검

순천시는 오는 28일부터 6월1일까지 노인요양시설 의료폐기물 관리 실태를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순천시에 따르면 최근 지속적 증가 추세에 있는 노인요양시설에서 발생하는 의료폐기물의 관리·처리실태 파악과 인체 감염 예방을 위한 법규 준수여부를 꼼꼼하게 확인하겠다는 계획이다.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노인들의 진찰과 치료, 검사 등 의료행위로 발생되는 혈액, 체액, 분비물, 배설물이 묻은 기저귀·탈지면·거즈 등은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인체에 위해(危害)를 줄 수 있어 지정폐기물(의료)로 관리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폐기물 처리계획 확인과 보관기간 준수, 전용용기 적정 사용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해 중대한 위반사항은 행정처분등 법적조치를 취하고, 경미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할 방침이다.

시는 앞으로도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의료시설과 동물병원 등 사업주에게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환경오염 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윤태상 순천시 환경보호과장은 "주민생활에 위해를 초래하는 불법 의료폐기물 배출자가 있는 경우 즉시 신고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순천=박선천기자 psc@kwangju.co.kr

'희귀 철쭉분재 전시회'가 순천만국가정원 서문 국제습지센터 1층에서 다음달 3일까지 열린다. 〈순천시 제공〉

순천만정원 '희귀 철쭉분재 전시회' 호응

습지센터서 다음달 3일까지

순천만국가정원에서 국내 최고의 '희귀 철쭉분재 전시회'가 열리고 있어 관람객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22일 순천시에 따르면 이번 전시회는 지난 19일 순천만국가정원 서문 국제습지센터 1층에서 시작해 다음달 3일까지 16일간 계속된다.

전시회는 대한민국 최고의 철쭉생산도시로 순천 철쭉의 우수성을 알리고 조경·화훼산업의 발전을 위해 마련됐다.

이번 철쭉분재 전시회에 출품된 작품은 순천에서 재배되고 있는 희귀철쭉 100여점이다. 철쭉은 순천시의 시화이기도 하다. 한 그루에서 여러 가지 꽃이 피는 진귀하고 아름다운 철쭉 꽃을 감상할 수 있다.

전시장에서는 분재용 철쭉 관리요령, 분재 기본교육과 함께 농가에서 생산한 분재도 저렴하게 판매된다.

순천시는 전국 제1의 철쭉생산 도시 위상에 걸맞게 철쭉을 체계적으로 심고 관리해 도시 계획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원지원센터와 연계해 철쭉 재배 및 생산, 유통체계, 철쭉유전자원 연구 및 품종개발을 통한 철쭉 명품화 사업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정원의 도시로서 순천철쭉의 우수성 홍보와 철쭉분재 전시를 통해 철쭉산업의 다양화로 정원수·화훼 생산농가의 소득과도 연계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순천만 생태보전·생물자원 공동연구 활발

순천시·낙동강생물자원관 협약 체결 기념 세미나

순천시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과 함께 순천만자연생태 보전과 생물자원 공동연구에 힘을 모으고 있다.

22일 순천시에 따르면 시는 이를 위해 최근 낙동강생물자원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지난 17일 순천만자연생태연구소에서 협약체결 기념 공동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

이번 세미나는 업무협약 체결 후 첫 학술교류로, 박기영 순천대 교수가 순천만 갈대생육 특성에 대해서, 정정 교수가 순천만 갯벌환경과 수질에 대해 발표했다.

이와 함께 이상득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전임연구원이 낙동강지역의 담수습지 퇴적토 돌말류에 관해서, 최경민 부장이 지역생물자원 활용과 산업화에 대해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내용들은 양 지역의 생태환경을 비교하고 향후 순천만의 환경변화 예측에 도움이 되는 자료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순천시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순천만의 생태환경과 생물자원의 공동으로 연구해야 할 공감대가 형성되고 양 기관의 협력관계가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